

‘꿈을 지닌 이들의 모습’ 이 있는 전시 열려

협회가 ‘벤처코리아2003’ 이벤트 행사로 개최한 ‘아이러브벤처 응모전’ 수상자의 시상식과 전시회가 지난 6일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벤처기업인의 진솔한 삶의 모습을 담아내고자 마련한 ‘아이러브벤처 응모전’은 글짓기분야인 ‘사랑의 벤처에세이’와 사진공모분야인 ‘사진을 올리면 노트북이 보인다’로 나누어 지난 한달 간 벤처인과 벤처가족을 대상으로 공모했다. 공모결과 글짓기 부문에 총 107편, 사진 부문에 총 120편이 접수됐다.

심사결과 박승창(앰텍스), 김은숙(비엔에프테크놀로지) 외 10명이 수상했으며, 수상자에게는 노트북컴퓨터 등 푸짐한 상품이 수여됐다. 한편, 수상자의 글과 사진은 <벤처다이제스트>에 계속하여 실을 예정이다.

<사랑의 벤처 에세이> 수상자

1등(Venture Love)	특히3장은 벤처의 불씨	박승창(앰텍스)
2등(Venture Passion)	내가 커피를 지금도 많이 마시는 이유	홍경석(개인)
	사랑하는 당신에게	김명수(개인)
3등(Venture Happy)	든든한 큰딸이 사랑하는 아버지께	문지현(다우정기)
	친구에게	정시동(개인)
	늦깎이 여대생이 벤처기업 여사장이 되기까지	김명숙(기모아)
	Venture The First Love *^^*	김현철(코엔텍)

<사진을 올리면 노트북이 보인다> 수상자

1등(Venture Love)	꿈을 지닌 이들의 모습	김은숙 (비엔에프테크놀로지)
2등(Venture Passion)	가치 있는 비전 공유	허정선(씨메이커)
	벤처인은 오늘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호준(성진씨앤씨)
3등(Venture Happy)	비트컴퓨터가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방웅권(비트컴퓨터)
	바로 이거야!	오현균 (한국방사선기술연구소)



사진을 올리면 노트북이 보인다 (Venture Love상)



꿈을 실현하기 위해 떠나면 한국, 대덕밸리에서 오늘도 밤새는 줄 모르고 일에 여념이 없는 인도인들이 있습니다. 독실한 힌두교인으로 채식주의자들인 그들... 먹는 것 하나, 잠자는 곳 하나 낮설지 않은 것이 없으려면 그들은 이곳에서의 모든 것에 감사해 할 뿐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직원 체육대회, 스키, 볼링 등의 모든 종목에 신기해 할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때나 해보았음직한 2인3각 경기에도 그들은 만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그들의 환한 미소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지닌 이들의 모습 사진_ 김은숙_ 비엔에프테크놀로지



특허3장은 벤처의 불씨

글_ 박승창_ 엠텍스



어느 날 문득 포털 사이트에서 운세를 보았더니 우리 회사에 올해까지 삼재가 끼었다고 했다. 삼재가 아니더라도 하늘이라도 무너질 듯한 시련이 닥쳐왔으니, 과연 그런 것이었던 말인가!

설립 후 6년째 되는 작년에야 그렇게도 염원하던 등록특허3장을 모두 거머쥐었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반응은 차가웠다. 우리 고객이었던 대기업의 구조조정, 설비투자 축소 같은 악재가 잇따르더니 급기야는 구매계획이 취소되고 말았다. 청춘을 다 바쳐가며 성실하게 키워온 회사와 기업부설연구소의 기술 인력과 시설이 모두 해산해야 했을 때, 심장까지 아파오는 새벽녘,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러 내렸었는가.

우리는 그렇게 인정할 수 없었던 실패를 뒤로 하고 모두 흩어졌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재기가 어려울 거라고 수군댔다. 그 후 금년 상반기까지 신용불량 딱지, 유체 동산

가압류 딱지, 경매 딱지, 상환금 납부독촉 딱지 등 온갖 종류의 딱지들이 나붙었고 투자자들은 주식을 현금으로 반환해 달라고 졸라대기도 했다. '시련의 연속'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 시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시련을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것은, 보고 또 보아도 흐뭇한 특허3장과 씁 없는 연구개발에의 의지가 우리에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허3장을 볼 때마다 칠혹같은 어둠 한 칸에서 희망의 불빛이 속삭이고 있는 걸 느낀다. 더욱 견뎌 보라고, 이제 일어설 시간이 다가 온다고.

그렇게 우리는 무릎으로 일어서고 있다. 성질 사나운 부채와 딱지들만 늘었고 비록 귀중한 인걸들도 해산되었지만 이 통증을 견디고 일어서야 하는 것이다.

처음 회사를 설립할 때의 각오만큼 더 이를 악물고 눈을 부릅뜨야 한다. 잘 연마된 전략이 있으므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승부로 재기할 것이다. 이제 창업 7년차인 금년 말,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점화되기만 하면 그리 먼 일도 아니다. 우리가 겨냥하는 것은 코스닥 상장 같은 단기적인 목표가 아닌 것이다.

특허 3장과 핵심기술을 갖고 닦아야 한다. 거대한 기업들이 우리 회사를 주목했던 지나간 4~5년 전처럼 그들이 직접 찾아와 노크하며 고객이나 파트너가 되는 그날까지 마케팅은 계속될 것이다. 생의 마지막 날까지 전진하는 것이다.

하늘이여 결코 무너지지 마시고, 이제부터 3년 동안 우리 회사의 삼재를 모두 거두어 가소서!